

#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와 한일관계

문예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 갈등과 대립의 한일관계와 임진왜란

한일관계는 개선을 논하는 관계다. 한일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며 전개됐으며, 조선 시대부터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을 겪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전쟁포로(조선피로인) 문제는 조선과 일본 양국이 논의하는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조선은 왜란 이후 통신사를 파견하여 조선피로인들을 조선으로 데려오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쇄환(刷還)외교가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에 발생한 피로인 쇄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논의되었으며, 몇 명의 조선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본 연구는 피로인들의 쇄환과정 중 발생한 제약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쇄환에 관한 자의적, 타의적 요인을 논의하며, 쇄환의 제약요인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사록(海槎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피로인 쇄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해사록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실린 견문록으로써 일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임진왜란 이후 최초의 정식 사행 기록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문신 경섭은 통신부사로 사행에 참석하였고, 8개월간의 일정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였다. 해사록에는 다양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으며, 선조, 예조 참의 등의 서신을 비롯한 공식문서와 개인 서신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쇄환은 임진왜란 이후 한일관계 논의에 있어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회답검쇄환사 파견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손승철(2006)은 회답검쇄환사의 파견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조망하였으며, 김정호(2016)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 이루어졌던 쇄환교섭을 비교분석하여 정치외교사적 특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조선시대 이루어졌던 한일관계를 설명하여, 조선의 사신파견이 양국 외교관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쇄환 과정에서의 제약논의를 활발히 다루지 않았고, 쇄환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기별 논의를 통해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거시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쇄환과정을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기반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쇄환과정 연구에 있어 기존과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 ans3981@naver.com

## 쇄환외교의 한계

쇄환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 요인이 발견되었다. 조선피로인 개인의 의사에 따른 내부적 요인 역시 작용하였고,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 조선 내부의 정치적 상황 역시 피로인 쇄환에 여러 제약을 가져다주었다. 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은 서로에 관한 불신과 양면성에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강한 쇄환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역시 비교적 협력적 자세를 보였지만, 조선과의 교섭에서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양면적 자세를 취했다.

쇄환외교의 한계는 피로인들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내부적 요인의 경우, 조선 피로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피로인들은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조선 귀국을 위해서는 일본인의 허락이 선행되어야 했었다. 비록, 일본 관백에서는 피로인들의 의사에 따른 쇄환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개인의 노예관계에 까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인한 양국의 불신은 쇄환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사행록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쇄환의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이러한 쇄환외교의 특성은 현재 한일관계에 있어 양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한일관계의 불신을 넘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사록에 등장한 쇄환외교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한계를 도출하고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언하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일관계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조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일관계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다. 한일관계에는 본 연구가 논의하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 존재해왔다. 강제징용, 독도, 위안부 등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역사 속 한일관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양국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일관계는 불신과 양면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구조적 한계이다.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의 전개과정은 현재의 교착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한일관계 접근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불신을 넘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 조선과 일본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과거 문제를 살펴보고야 할 것이다. 과거 문제부터 논의한다면, 한일관계는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 개선은 서로에 대한 신뢰 확보로부터 시작된다.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불신만 강화될 뿐이다.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한일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외교의 등장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기후변화, 한반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의 불신을 넘어 신뢰와 협력의 한일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海槎錄』

김문자. 2004. “임진·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 33-64.

김정호. 2016.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 사적 특성 비교.” <21세기정치학회보> 26(1), 141-168.

손승철. 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파주: 경인문화사.

이훈. 2014. “임란 이후 회담겸 쇄환사로 본 대일본외교 전략.” <한일관계사연구> 49, 267-309.